선생님을 만나 인삼 밭을 잘 지키는 도사가 된 개 (멘토를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)

어떤 시골에서는 개 천지였어요. 어느 집이든 다 개가 있었어요. 그 중에 한 부자 집이었는데 그 집의 개가 진돗 개에요. 근데 그 개가 멋있고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는거에요. 그 개가 집에서 도둑을 안 지키고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개들이나 사랑하고 다녔던거에요. 그리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. 그 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겠어요. 완전 어이가 없었겠죠?그래서 그 개를 도저히 키우면 안되겠다 하고 시장에 팔아버렸어요. 불쌍하죠. 아무리 제 할 일을 못한다 해도 시장에 팔린다는 건 좀 그렇죠?
근데 이 개가 멋있는 개라서 그런지 참 명이 좋아요.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
똑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돈이 없고 명예도 없지만 정신력과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 개가 시장에 팔려간 그날에 시장을 보러갔어요. 딱 그 개를 보고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개다 딱 알아본거에요. 그래서 그 개를 바로 사서 자기 집에 데려가 다시 잘 훈련시키고 길렀어요.
그러다가 그개한테 오~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어요.
이 인격이 뛰어난 사람은 인삼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개가 결국 인삼밭을 잘 지키는 도사가 되었고 집도 안오고 지키는 대단한 개가 되었어요.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인이 인산밭도 지키고하니까 고기도 사주고 그렇게 지내는 이야기가 있었어요.
어때요?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?
근데 이 개의 이야기를 왜 학생에게 하냐면 우리는 생활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죠.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. 그 개가 부자를 만났는데 돈이 많았지만 개자신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개가 본래의 자기 가치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한거에요. 우리는 똑같에요 사람을 잘 못 만나면 이 개처럼 내 맘대로 살다가 결국 시장에 팔려 인생을 망치는 일도 할 수 있게되요. 우리는 아직 젊은데 그렇게 망치면 안되잖아요. 정말 나를 제대로 인도해 주고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되요.
학생은 그런 분은 만난적이 있어요? 만약에 그런 학생의 가치나 잠재력을 알게하고 학생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는 멘토링이 있다면 한번 배워보지 않으세요?

2012.11.27잠언>
선생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, 그 개는 도둑은 안 지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개 들이나 사랑하고 다녔다. 그리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다. 개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, 금산 시장에 팔아 버렸다. / 선생은 그 개를 사다가 다시 잘 길렀다.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개는 결국 인삼 밭에서 도둑을 잘 지키는 도사가 되었다. 집에도 잘 안 오고 인삼 밭을 지키기에 밥도 싸다가 주었다.